

두 종류의 무화과

성경말씀: 렘24:1-10

지난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근본 문제: 목양자들의 타락, 이 나라의 문제: 목사들의 타락, 옳은 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많지 않다.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확실한 목사 필요, 바른 성도들

바빌론 포로 생활

목자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무지해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가 됨
1차(BC 606, 여호야김 왕하24:1, 단1), 2차(BC 597, 왕하 24:10-16, 여호야김과 만 명의 포로, 에스겔의 대언), 3차(BC586, 시드기야, 왕하 24:17부터 25장), 귀환(BC 536), 70년
오늘의 이야기는 두 번째 끌려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약속도 지키시고 심판의 약속도 지키신다.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되어가는 것으로 낙담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1절)

주의 성전 앞에 두 개의 무화과 바구니(2-3): 첫 열매 현물로 드린 무화과들, 좋은 무화과는 심히 좋고 나쁜 것들은 너무 나쁘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5-7), 나쁜 무화과는 남아 있는 자들(8-10)

한 나라, 한 민족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고 썩은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의 무화과’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불쌍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내림.

사57:1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동일한 고난이 한 부류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부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됨.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야 한다.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의 자기 삶 속에서 본 가장 부패한 무화과들: 시드기야와 남아 있는 자들(8-10)

렘21:8,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가 선택하라. 바빌론의 시대

생명의 길: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 사망의 길: 버티다가 죽는 것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없다.

남은 자들: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축복이다.

포로 생활은 고통이다. 남는 게 좋다. 그러나 10년 뒤의 3차 침공에 의한 고통은 포로 생활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애1:14-5, 2:20-21; 4:1-4).

이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과일은 한번 썩으면 고칠 수 없다(냉장고 소용없음).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하면 가장 나쁜 것이 된다.

어디를 가도 썩은 것은 그대로 있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진 거하는 자들(8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 데가 없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마5:13).

렘25:1-3의 경고의 말씀이 이미 24장 전에 주어졌다.

예레미야의 대언, 다른 대언자들의 대언(3-4)

핵심 내용(5-7); 우상 숭배 No,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음행 No, 가난한 자 배려, 거짓

대언자 배격, 네 지혜, 재물, 지식 자랑 No, 물질 사랑 No, 사람 사랑 Yes, 그리스도만 왕이다.

동일한 경고의 반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구체적 심판 내용(25:9-11): 느부갓네살이 온다, 기쁨의 소리가 그친다.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다(9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25:7).

죄를 택하면 죄의 결과도 택하는 것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다(롬6:23).

왜 지옥에 가는가? 스스로 원해서 간다.

모두가 자기의 꾀에 빠져 지낸다. “구원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사야서 14장의 루시퍼“, 모두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다. 그 결과를 받는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살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한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시다.
죄악을 고백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라.

좋은 무화과(5-7)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음: 무화과는 세 번 열매를 맺는데 처음 익은 것이 가장 좋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임무(렘1:10),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것
저주/심판 4개, 복구/회복 2개, 지금까지 저주/심판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복구/회복이 나올
포로 생활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익은 무화가 같이 복이 됨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7).
이것이 성경의 복이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어떤 목사님이 쓴 글: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17:3).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겼다: 백성들, 제사장, 대언자, 왕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날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공의, 징계
벧후3:18,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런 지식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가?
모임을 즐거워하는 일로 나타나는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로 나타나는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군사로서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딤후4:15 말씀에서 얻은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특히 신학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좋은 무화과는 연단을 통해 나온다. 죄를 지었다.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가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시137:1-4처럼 마음대로 주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좋은 무화과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때에
나온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
에스더 이야기: 화요일 아침, 차 전복,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긴다. 생길 수 있다.
이 일을 통해 나와 아내와 세 아이들 그리고 사위가 우리의 앞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아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